

다이와보의 중국 제품 사업 - 투자 집중으로 리스크 줄여

다이와보의 제1사업 본부에서는 중국의 노무비 상승, 외환의 위엔고, 반일 감정과 같은 리스크에 대하여 ① 소프트 면을 중요시한 생산 체제의 구축 ② 생산 품종의 확대 ③ 쑤저우시(蘇州市)와의 관계 강화 등으로 극복하는 방침을 세웠다.

점차 오르고 있는 노무비나 외환의 리스크를 고려하여, 앞으로는 중국에서의 생산 품종을 보다 부가 가치가 높은 것으로 바뀌가기로 하였다. 이 방침에 따라 성형 이너를 제조하는 다이와보 공업(쑤저우)을 설립한다. 1인당 생산량이 아니라 설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를 중점으로 하여 투자하며, 앞으로는 소프트와 원료로 차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신사용 내복을 본격 생산하면서, 앞으로는 여성용 캐미솔(camisole ; 가슴에서 허리까지의 여성용 속옷)이나, 스포츠용 등의 아이템을 넓히는 등 생산 품종을 고부가 가치화하도록 한다.

동시에 쑤저우 다이와 침직복장(蘇州大和針織服裝)이 있는 쑤저우시에 새로운 성형 이너 공장을 설립한 것은 반일 감정의 리스크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투자를 집중시키고, 앞으로 대화를 통하여 시 정부와의 관계를 깊게 하여 리스크를 줄인다.

또한 일극집중(一極集中)의 리스크 헤지(risk hedge)를 위하여 생산 거점을 갖고 있는 중국·인도네시아 이외에서의 생산 거점을 설립하는 것도 2006년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중기 계획의 과제로 되어 있다고 한다. ♣